

2. Metastatic Malignant Phyllodes Tumor of the Lung

- A case report with cytologic features -

폐로 전이한 유방의 악성 엽상종양

임현이, 이광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유방의 엽상종양(Phyllodes tumor)은 세포밀도가 높은 기질이 상피세포로 피복된 관구조로 돌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종양으로서, 유방종양의 약 0.3~0.9%를 차지한다. 더우기 악성 엽상종양은 매우 드물고, 그 세포학적 소견이 기술된 문헌 역시 많지 않다. 엽상종양은 세침흡인 생검상, 상피 및 기질세포가 모두 나타나는데 기질세포가 높은 세포밀도로 도말되며 관상피의 증식, 풍부한기질 및 거대세포들이 관찰될 수 있고, 기질세포의 비정형성 여부에 따라 악성 엽상종양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저자들은 폐의 단독 결절에서 세침흡인 생검을 시행하여 육종의 소견을 보였고, 환자에게 유방의 악성 엽상종양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어, 유방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폐의 병변을 유방의 악성 엽상종양의 전이로 진단할 수 있었고,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악성 엽상종양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66세 여자로서 4년 전 좌측 유방의 악성 엽상종양으로 잔유방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추적 관찰하던 중 흉부 X-ray검사상 우측 폐상엽에 단독 음영의 결절이 발견되어 세침흡인 생검을 시행하였다. 도말 소견상, 여러 조각의 성근 점액성 기질과 과염색질의 약간의 비정형성을 동반한 방추형 세포들이 밀도높게 관찰되었다. 피사 조직 조각이 흩어진 배경에 크고 둥근 과염색질의 종양세포들이 산재되어 관찰되었다. 가끔 핵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다핵 거대세포도 출현하였으며 핵의 염색질은 거칠고 뚜렷한 핵소체를 보이며, 세포질의 양은 풍부하였다. 이들 악성세포들은 세포군집을 형성하지 않아서 육종으로 생각하였으며, 연골육종과 같은 부분이 도말된 것도 관찰되었다. 4년전 적출한 유방의 종양의 광학현미경적 소견은 부분적으로 연골육종성분을 포함한 악성 엽상종양에 해당하여, 본 환자의 폐의 병변이 악성 엽상종양의 폐전이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우폐상엽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폐 절단면상 기관지와 연관성이 없이 폐변연부에 위치한 5cm 직경의 황회색 고형성 종괴로서 중앙부의 피사와 회백색의 연골 유사조직이 관찰되었다. 광학현미경적 검색상, 종괴의 대부분은 상피성분이 없이 다형성을 보이는 방추형 기질세포들의 다발로 이루어지고, 일부 세포는 크고 둥근 과염색질의 핵을 가지며, 다핵거대세포형성을 보이고 연골육종과 같은 부위도 관찰되어 4년전 적출한 유방종양의 병리학적 소견과 일치하였다.